

신간소개 | Books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문해교육의 힘 - 라틴아메리카 혁명의 현장

데이비드 아처·패트릭 코스텔로 (지은이) | 김한수·김경래 (옮긴이)

원제: Literacy and Power: The Latin American Battle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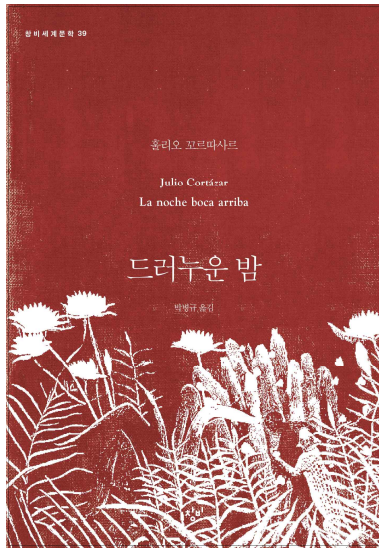
출판사: 학이시습

출판일: 2014-06-30

ISBN(13): 9791130421193

396쪽 | 223*152mm (A5신)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문해교육운동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비드 아처와 패트릭 코스텔로는 1988년 10월부터 1989년 9월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에콰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에서 조사한 문해교육운동을 이 책에 담았다. 모두 10개 사례를 보여 준다. 각 사례에 등장하는 라틴아메리카 민중은 문해교육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활세계와 밀접히 연관된 문해교육운동을 전개한다. 이것은 민중조직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세계 읽기’로 이어진다. 문해교육운동이 새로운 ‘혁명’이 된 것이다. 여기에 파울로 프레이리의 문해교육 방법론이 녹아 있다. 프레이리의 문해교육 방법론을 통해 민중이 언어, 문화, 사회, 인종, 성 등 사회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함께 학습하고, 창조하고, 변형해 가는지 보여 준다. 따라서 특정 이론이나 통계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민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드러누운 밤

홀리오 코르타사르 (지은이) | 박영규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36464394

384쪽 | 210*14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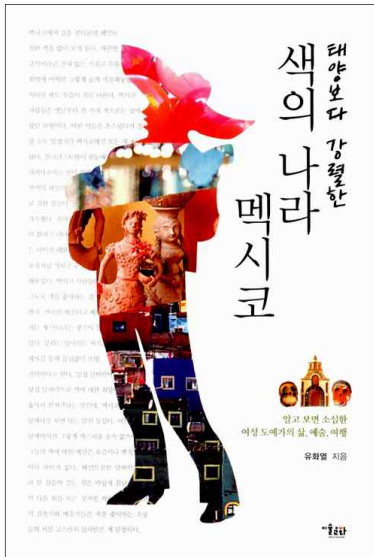
창비세계문학 39권. 빛나는 상상력으로 가르시아 마르케스, 바르가스 요사 등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붐 소설을 주도했으며, 모든 언어권을 통틀어 20세기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로 꼽히는 홀리오 코르타사르의 중

단편선. 코르타사르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계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모호한 텍스트, 현실과 비현실의 혼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환상문학을 구축하여 문단은 물론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작가 스스로 “환상성이 거처하는 집”이라 묘사한 바 있는 단편소설에서 탁월한 경지를 보여주었는데, 모호함과 구멍투성이의 세계를 환상적이고도 견고한 건축물로 축조해내는 그의 단편들을 두고 호르헤 보르헤스는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조차 훌륭하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드러누운 밤』은 홀리오 코르타사르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첫 출간되는 소설집으로, 그간 몇몇 선집에 극히 일부만이 소개되었을 뿐인 코르타사르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조망하게 해주는 대표작들을 모두 담았다.

이탈리아 영화계의 거장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가 ‘확대’(Blow-up)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하여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바 있는 「악마의 침」, 보르헤스가 주관하던 잡지에 발표하며 단편소설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점거당한 집」, 작가의 유일한 중편소설로 재즈음악가 찰리 파커의 삶을 모티프로 삼은 「추적자」 등 코르타사르가 보여준 독보적인 상상력의 힘을 두루 음미하게 하는 15편의 중단편을 수록했다.



태양보다 강렬한 색의 나라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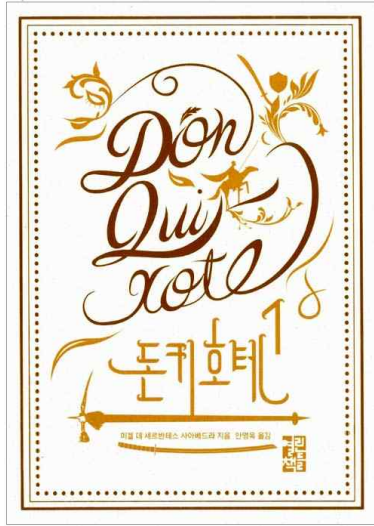
유화열 (지은이)
 출판사: 미술문화
 출판일: 2014-07-30
 ISBN(13): 9788991847644
 336쪽 | 215*150mm

한국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멕시코에 가
 게 된 저자는 낯선 멕시코 땅에서 지금까
 지와는 전혀 다른 미술을 만나고 거기에
 매혹되고 만다. 멕시코는 디에고 리베라 같
 은 벽화 거장들이 국가의 영웅으로 대접받

던 나라며, 프리다 칼로와 마리아 이스키에르도 같은 드라마틱한 여성 예
 술가들이 태어나고 활동하던 나라다. 그러나 멕시코의 미술은 이름난 예
 술가들의 것만이 아니었으며, 일상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소개하는 멕시코 미술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흙으로 만든 인형, 토우다. 멕시코만큼 다양한 토우가 존재하고 사랑
 받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것이다. 저자가 특히 애정을 가지고 소개하는 것
 은 콜리마 토우인데, 자유로운 인체 표현과 인간적인 나긋나긋함이 특징
 이다. 많은 예술품이 강력함, 완벽함, 무시무시한 존재감과 공포를 보여주
 려고 하지만 콜리마 토우에는 그런 강박이 없다. 오히려 잔잔한 일상의
 묘사를 통해 인간적인 동질감을 이끌어 낸다. 저자는 삶의 힘든 순간을
 겪으면서 콜리마 토우에서 굳이 외부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정직함
 과 흥가분함,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소박함을 발견했다.

지금도 멕시코에서는 토우가 만들어지고 있다. 멕시코의 도예마을 중
 에는 여성들만 토우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
 노동 틈틈이 흙을 빚고 색을 칠해 자기들만의 토우를 만든다. 그들의 작
 업을 보고 있노라면 일상생활과 예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굳이 그 둘을
 나눌 필요도 없어 보인다. 멕시코에서 예술은 멀리 있지도, 거창한 것도
 아닌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돈키호테 (전2권)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지은이) | 안영옥 (옮긴이)

출판사: 열린책들

출판일: 2014-11-15

ISBN(13): 9788932916804

784쪽 | 220*155mm

성서 다음으로 지구 상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의 『돈키호테』. 『돈키호테』에 담긴 세르반테스의 문체와 정신을 고스란히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고려대학교 스페인어문학과 안영옥 교수는 5년의 고증과 스페인에서의 답사를 거쳐 국내에서는 만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한국어판 『돈키호테』를 탄생시켰다.

작품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읽어야 그 작품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완역 정신을 세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돈키호테』 2권까지 총 6,700여 매(200자 원고지 기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정확한 번역 작업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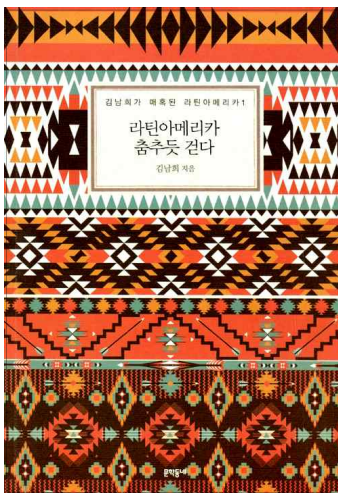
열린책들은 1605년 출간된 전편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는 『돈키호테』 1권으로, 1615년 출간된 후편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jote de la Mancha)는 『돈키호테』 2권으로 출간하여, 원작이 갖고 있는 물성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책 두 권 모두에는 현재까지 그려진 『돈키호테』의 삽화 중 가장 세밀하고도 유명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구스타브 도레의 삽화 1백 점을 수록했다.



중남미(멕시코·칠레) 환경법제정보

법제처 (지은이)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14-09-29
 ISBN(13): 9791155650233
 228쪽 | 220*150mm

이 책은 중남미(멕시코·칠레) 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멕시코의 「생태학적 균형(평형) 및 환경보호일반법」과 칠레의 「환경일반기준법 제19300호」에 대한 소개이다.



라틴아메리카 춤추듯 걷다

김남희 (지은이)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일: 2014-10-24
 ISBN(13): 9788954626101
 400쪽 | 224*153mm

이 책에서는 칠레,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아마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의 크고 작은 도시에 대한 여행기이다. 라틴아메리카 하면 흔히들 치안이 불안한 곳, 열정이 넘치는 곳, 음악과 춤이 넘치는 곳 정도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 넓은 대륙만큼이나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고단한 삶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견디며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의 중요함을 체화한 이들을 만나며 저자는 강인한 생명의 기운과 마주하고 여행의 본질과 의의에 대해 되묻는다.